

#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1990년 이후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강희경

## 目 次

I. 서 론	IV.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
II. 한국적 디자인의 개념 및 성격	1. 한국적 풍토에 입각한 자연주의
III. 자연주의	2. 자연주의가 나타난 '한국적 의상디자인'
1. 자연주의의 발생 및 개념	V. 결 론
2. 의상을 통한 자연주의의 표현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문화의 소산인 복식은 문화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복식을 필요로 하는 동기와 복식의 기능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각기 다른 자연환경, 기술적·심미적·도덕적 특성의 작용으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복식은 문화마다 다른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며, 한 문화 안에서조차 분화를 일으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복식은 시대와 지역, 민족에 따른 특수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sup>1)</sup>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닌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정체성을 세계 속에서 확고히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연주의에서 그 근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의 미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자연의 미는 예술의 미를 낳게 하는 모태가 되어 이 속에서 생을 영위하도록 제공하는 자연환경이 되며 생활 주체로서 그 민족성과 인간의 기질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그 민족 고유의 미의식 또는 예술의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을 규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이러한 자연은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축적되어 의식세계에 영향을 주고 조형의식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우리 나라의 산세, 지세, 노년기성 지형에 의해 생성된 소나무의 형태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완만한 곡선의 부드러움과 풍화 작용에 의해 형성된 둥근 형태의 바위 모양에서 오는 편안함, 안정감,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이용한 습으로부터 오는 두께감 등은 풍토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우리의 의식이며 이것은

1) 이경자, 한국 복식사의 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75.

2)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서울: 열화당, 1990, p.44.

3) 백기주,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8~9.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려 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자연주의적 미의식과 연결되어 '한국적 의상디자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적 자연주의에 근거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디자인은 우리의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배어있는 전통 문화를 형상화시키는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은 국제사회 속에서 중요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나라의 의상계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으로 인해 많은 디자이너들이 민족의 고유성, 한국적 전통표현과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며 세계 무대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 동안 연구되고 발표되어온 '한국적 의상디자인'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전통의 뿌리가 되는 사상과 양식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전통의 부분적인 파편들에 의한 접근방법으로 모자이크 식으로 이어나가다 보니 하나의 전통적 흐름을 도출해 내기가 힘들었다. 우리는 외부의 힘에 의해 전통의 단절기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과거의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적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적 디자인을 창출시키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현대의상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 우리 자연, 우리 정서, 우리 복식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조형감각을 표출하는데 근원이 되는 한국적 풍토에 입각한 자연주의를 고찰함으로써, 전통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해석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II. 한국적 디자인의 개념 및 성격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옛 것의 형식적인 재현이 나 모방이 아니라 순수한 한국의 정신문화 전통과 현대화 요구의 충돌을 생생하게 체험한 후 생겨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일 것이다. 60년대 이후 '한국적인 것 찾기 운동'에 나선 장본인들이 한국의 정신문화 전통을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생명력 있게 유지해 오면서,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현대화와 철학적 가치관에서의 마찰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러한 현대화 과정에서 인간 정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적인 것 찾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sup>4)</sup> 실제로 그 동안 우리 문화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전통과의 심각한 괴리감을 경험했고 6·25 동란 이후 폐허가 된 공간에 미국식의 문화가 덧입혀졌다는 역사적 사실이다.<sup>5)</sup> 이같이 한국적인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지 않은 이미 이질적인 옛 것을 객관화된 정보의 단편들로 발굴하는 데 불과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거 몇 천년 동안의 한국 민족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생성된 정신 세계의 원형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한국적인 것이며 그러한 정신적 원형이 과거의 형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묻어 나오리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단정이라고 본다.

한국적 디자인은 디자인된 대상을 보았을 때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국성을 표출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때 한국성이라는 것은 가시적 형상은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역동성을 일으키고 특질을 발현시키는 연속성을 의미

4) 홍가이, 현대미술, 문화비평, 서울 : 미진사, 1992, pp.222~225.

5)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서울 : 솔출판사, 1997, p.52.

6) 하므로 일정 집단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형성되어 규범적 힘을 발휘하는 정신적 경향이나 성격으로 정의되는<sup>7)</sup> 전통과 연결되어 설명된다.

전통이란 민족 생활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형성된 정신적 경향이나 성격이 여러 시대를 통하여 전승되어 하나의 규범적 힘을 이름으로써 후세의 문화창조를 규정하는 것이다.<sup>8)</sup> 그것은 대개 사회적 태도, 믿음, 관습 그리고 기호와 같은 것으로 구체화되고 유기적 체계를 이루며 시간을 통해 진화되는<sup>9)</sup> 역사적 의미를 지닌 가치체계로서 후대에 이르러서는 규제적으로 작용하며 문화의 발전에 일관적,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디자인에 있어서의 전통이란 지나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창조되고 계승되어온 형식 그 자체, 혹은 그것을 낳고 지탱해 온 디자인의 방법과 이데올로기를 가리킨다.<sup>10)</sup> 어떠한 방법과 이데올로기가 전통적인가는 현재 발견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공통으로 존재해 왔고 객관화되어 왔던 것이다. 모든 디자인이 전통은 아니며 현재의 창조에 있어서도 존재 혹은 검증의 의의가 있으며, 장래에 대해서도 길게 계승되어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전통' 혹은 '전통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나간 것, 동시에 오랜 기간동안 계승되어온 것'이 그것이며, 또 하나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금 당장 창조되는 새로운 필연의 것'이 그것이다.

전통 문화와 디자인의 융합은 디자인을 민예품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적이라고 하면 우선 전통적인 주제나 소재를 모티프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현대성보다는 전통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왔다. 그러

나 현재 우리는 전통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와 세계 속에서 독자적 가치를 구현시키지 못하여 다양했던 문화 유산이 현재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력에 의한 전통문화의 단절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전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였으며 몇몇 일본 학자에 의해 연구되어진 그대로를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시선으로 이해하여 왔다는 데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미는 비애의 미'라거나 '한국 미술의 특징은 무계획성' 등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언어로써 전통을 규정하고 이를 고정 불변하는 틀로 파악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방향은 전통에 대한 추상적이고 고정화된 관념에서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풍토에 입각한 자연주의의 연구를 통해 전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이를 현대화하여 디자인을 창출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지면서 한국적 디자인의 틀이 형성되어 질 것이며, 세계 속에서 한국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미학적 선행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복식의 표현 수단인 기능은 예술가의 내적 목적인 감정 내지는 상상을 표출하고자 하는 예술의 심미적 표현 기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sup>11)</sup> 미학이 미적 현상에 관한 본질이나 법칙을 찾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복식의 미적 현상에 관한 본질이나 법칙을 찾는 학문을 복식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복식 미학이 우리 나라에서 본

6) 김복영, 한국미술, 그 다시 태어남을 위하여, 공간 251호, 1988, pp.34~35.

7) 김문환, 미학의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1989, p.225.

8) 미진사 편집부, 미학·예술학 사전, 서울, 미진사, 1989, p.295.

9) 이경자, 우리 의생활의 전통양식, 전통적 생활양식 연구, 서울: 천풍출판사, 1982, p.143.

10) 명승수, 현대 디자인학의 지평, 월간 디자인 출판부, 1987, p.180.

11)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가정학회지, 제 27권, 2호, 1989, p.15.

12) 조규환, 복식 미학, 서울: 수학사, 1990, pp.10~22.

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최근 들어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복식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서양 복식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한국적 의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sup>13)</sup> 하겠다.

민족양식으로서 한국복식은 우리민족의 생활환경에서 형성된 조형의지와 미의식에 의해 형성된 조형물<sup>14)</sup>로서 그 감각적 형식을 통해 정신적이며 관념적인 내용을 표출하며 미적 가치를 발휘한다. 한국인의 미의식은 자연주의적 성격과 토속 신앙적 태도로 집약되며, 자연주의적 성격은 복식의 형과 선에 있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하는 곡선, 색채 등으로 표출된다.<sup>15)</sup>

조규화<sup>16)</sup>는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양을 비교하였는데, 한국의 당초 문양의 특징은 가냘프면서 느슨한 선에서 발견되는 소박함과 단순함, 온화함과 예리한 긴장감을 들고 있다. 최세완<sup>17)</sup>은 조선시대 복식의 미적 특징을 형식미와 내용미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형식미로 형태의 유연한 선, 대비색, 유사색, 무채색의 조화, 투박하거나 부드러운 재질, 자연주의적 모티프의 장식무늬를 언급하고 자연주의의 미, 주술적인 미, 의례적인 미, 보수성향의 미로 내용미를 정의하였다. 한국복식의 미적 가치에 대해 금기숙<sup>17)</sup>은 기존의 일원론적 방법에서 벗어나 다원론적인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자연미, 인격미, 벽사의 미, 전통미라는 미의식을 도출하였다. 이는 한국복식의 미적 특징과 미적 가치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넘어 상호 연결된 관계 속에서 중

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기숙의 연구는 한국미학의 전반에 걸쳐 연구되어야 할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미적 특징이나 미의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복식에 도입한 연구로 큰 의의를 지닌다.

위의 연구자들은 한국복식의 미학적 특징에 대한 공통분모로 자연의미를 들고 있다. 전통복식의 미적 특징을 파악하려는 것은 미적 특징 그 자체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닌 미적 특징에 내재해 있는 당시대인의 조형의지에서 추출해 볼 수 있으므로,<sup>19)</sup>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해 그 의미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으로 의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 맥을 형성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한국적 풍토에 입각한 자연주의적미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 Ⅲ. 자연주의

#### 1. 자연주의의 발생 및 개념

자연주의(Naturalism)라는 말은 ‘자연’(Natural)이니 ‘자연적인 것’(N: ‘aturalness)이니 하는 말들을 곧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지칭하는 범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사용되는 더 많은 용례에 접하면 접할수록 그 용어의 광범위한 영역과 복합적이고 잠재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sup>20)</sup> 자연주의라는 용어는 문학비평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비평의

13)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 민음사, 1992, p.11.

14) 김영자, “한국 복식미의 연구-예의관과 표현미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3.

15)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p.295~296.

16) 조규화, “당초 문양의 계보”, 미술 자료 18호, 1982.

17) 최세완,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8) 금기숙, 앞 논문.

19)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6, p.19.

20) Peter N. Skrine & Lilian R. Furst, 천승걸 역, 자연주의(Naturalism),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1.

용어만은 아니다. 자연주의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용어가 문학 분야에 소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자연주의에 대한 개념과 접근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그 관점 또한 달랐다. 원래 '자연주의'란 유물주의(Materialism), 쾌락주의(Epicureanism), 혹은 여러 형태의 세속주의(Secularism)를 뜻하는 것으로 고대 철학에서부터 사용되던 말이며, 이러한 본래의 어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sup>21)</sup> 자연에 대한 시각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조명되어 각각 다른 양식으로 표현되었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재현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연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사람의 시각에 의해 변화된다고 생각하여 회화의 배경화가들은 보이는 그대로 그렸고, 그것이 사물을 재현하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중세에는 자연의 의미를 자연물의 원천으로서의 자연, 즉 자연의 규범 및 패턴의 의미와 이러한 자연의 산물로서의 의미로 구분하여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자아의 자각과 실증주의적 과학성이 모든 개념을 '신'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중세의 개념들에 일대 변혁을 가져와<sup>22)</sup>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인간적인 자연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르네상스의 자연주의는 자연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객관화를 추구했으며, 그 본보기를 고대에서 찾았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의 고전기는 '최초의 자연주의적 예술'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예술은 '자연주의 부흥'이라고 이야기된다.<sup>23)</sup>

그 후 18세기 중반의 고고학의 발달과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고대 문화 유산의 재발견을 통해

고전으로의 복귀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풍조는 18세기 말 신고전주의를 탄생시켰다.

19세기 유럽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제가 문학과 예술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여, 자연이 인간의 생의 터전인 동시에 인간이 속한 모든 환경으로서 인간의 미의식과 예술활동의 모체가 되어 왔다. 이 시기의 자연주의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이었고, 반심미적, 반낭만적이었다. 각나라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났으며 대체로 각 나라의 상황에 대응하여 고유의 전통배경에 반대하여 각각 다른 목표를 선택, 결정론에 대한 믿음 등 공통된 근본 요소들이 있었다.<sup>24)</sup> 20세기에 이르러서 자연주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객관적인 개념보다는 개성적인 시각으로 주관적인 형상화를 띠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이래 사회구조의 격변, 자아의 확립과 개성의 주장, 자유의 존중이라는 시대적 의식은 주관적 표현의 정신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의 철학적 바탕 위에서 새로운 예술 창조 의 원동력이 되었으며,<sup>25)</sup> 20세기에 등장한 현대의 자연주의는 환경 파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표명된 생태학에 대한 관심과 자연의 회복 그리고 인간성 상실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겠다.

앞에서 자연주의 개념 역사적 변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에 대한 시각은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조명되고 각각 다른 양식으로 표현된다고 하겠다.

현대 는 가치관의 혼란시대로 개방화와 변혁으로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신적 소외감과 스트레스의 탈피를 위한 자연으로의 회귀와 자아실현의 갈망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의 삶에서 과학과 기

21) 앞 글, pp.15~16.

22) W. Tatarkiewicz, 미학의 기본 개념사, 서울 : 미진사, 1987, p.322.

23) 월간미술 편집부,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1994, p.334.

24) Peter N. Skrine & Lilian R. Furst, 앞 글, pp.26~34.

25) 양윤정, "현대 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9.

술은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문명의 퇴폐현상과 자연의 파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호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요청되며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현대의 자연주의는 재해석되어 등장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 자연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발생 배경을 개론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자연주의가 '한국적 의상디자인'과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의 문제는 IV-1장의 한국적 풍토에 입각한 자연주의를 고찰해봄으로써 기능해 질 것이다.

## 2. 의상을 통한 자연주의의 표현 방법

미학사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사상 중의 하나는 예술이 자연을 재현하고 반영한다는 자연주의 사상이다. 이것은 예술이 자연과 가까워짐과

동시에 자연이 인간과 가까워진다는 것이라 하겠다. 문질문명 발달의 부가적인 환경오염의 문제기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연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곳을 마음속에 동경하게 된다. 이것을 그리워하며 자연을 충시하는 사고방식은 자연주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sup>26)</sup> 의상에서는 이를 자연주의의 영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대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물-꽃과 풀, 풀·꽃과 나무, 새와 동물, 물과 흙 등-을 대상으로 사실적인 묘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에의 회귀를 표방하는 자연주의 경향은 동물, 식물, 광물 등 자연의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의상을 통한 자연주의의 표현 방법에는 직접적



〈그림 1〉 Jean-Paul Gaultier, '97 S/S 「Collezioni」



〈그림 2〉 Vividakiko, '91 S/S 「Collections」

26) Marie-Charles Dominique, Jocelyne Pion, Art et Nature, Paris : Ligeia, 1992. p.47.



〈그림 3〉 배천범  
'97 KAWA 모자조형전 Catalogue



〈그림 4〉 진경옥 '97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 Catalogue

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표현으로는 자연 모티프의 문양, 트로피컬 패턴, 꽃과 나뭇잎, 나뭇가지, 열매, 깃털, 조개, 해조류 등 자연물의 부착〈그림 1, 2〉과 액세서리 디자인으로 자연을 표현한 것〈그림 3〉이 있으며, 실루엣에서 자연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그림 4〉이 있다. 간접적 표현으로는 자연적 질감이나 소재 활용, 자연색 사용, 핸드 메이드의 선호,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비인위적인 자연스러움을 나타내어 현대문명의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서적이고 순수한 이미지의 자연주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주의의 표현 방법으로 직접적 표현과 간접적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겠다. 외적 조형 요소로 적용된 직물의 모티프 중 하나인 꽃은 자연주의 의상의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시즈의 컬렉션에서 이러한 꽃의 조형물 장식〈그림 5〉과 꽃무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프린트물 뿐 아니라 코사지를 직접 의상에 부착하여

입체적인 조형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그림 6〉이는 의상을 통해 인간을 자연 속의 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의지의 표현으로 직접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주의 의상은 자연의 모습을 재현시켜 현대인들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에콜로지 경향의 자연주의 의상은 인공적이 아닌 자연 그 자체를 되살리자는 인식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주의의 또다른 간접적인 표현은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의상의 다양함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연과의 관계, 자연스러움의 추구, 그리고 인간성 해방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상은 천연섬유를 주소재로 활용하여 인체에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나타내고 염색도 천연염료를 사용하거나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생지 상태의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의 소박함, 순수함과 자연성을 잘 드러내준다. 자연주의 의상은 자연의 모습을 재현시켜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생각나게 함은 물론 인공



<그림 5> Loewe, '91 S/S 「Collections」



<그림 6> 강희경, '96 KAWA 창립전 Catalogue



<그림 7> 박 현  
'97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 Catalogue



<그림 8> Issey Miyake  
'92-'93 A/ W 「Collections」



적이 아닌 자연 그 자체를 되살리자는 인식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주의 의상은 자연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역점을 두므로 재질면에서의 자연적인 것의 사용은 중요하다. 자연의 질감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소재, 가공하지 않은 천연섬유의 사용<그림 7>, 불규칙하고 구겨놓은 듯한 고르지 못한 표면을 통해 양감 있고 풍부한 표면질감을 가진 소재<그림 8> 등으로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느낌으로 자연에 속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

의상에 나타나는 자연주의는 에콜로지나 프리미티비즘, 에스닉의 스타일로 표현되며, 이들은 20세기말로 접어드는 사회의 불안감의 노출에 대한 반응이라 볼 수 있다. 자연주의는 원시자연으로의 회귀가 목적이 아니라 에콜로지나 프리미티비즘 그리고 에스닉의 힘을 빌어 연출되고 재창조된 자연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자연주의의 표현은 현대인의 상실된 본질을 찾고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의상의 융화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

##### 1. 한국적 풍토에 입각한 자연주의

김원룡,<sup>27)</sup> 안휘준,<sup>28)</sup> 문명대, 김정기<sup>29)</sup>는 한국 미술의 특색을 자연의 미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조형 전반에 흐르는 자연의 인식을 전제로 하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순수미를 이루어 의상에서도 가장 큰 특색으로 나타

났다.

의상의 미적 가치의 하나로 유추된 자연미는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의 근원을 구한 것으로, 의상의 조형에 있어서 미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다.<sup>31)</sup> 의상의 미적 가치로 추출된 자연미는 김원룡이 한국미술의 특색으로 표방한 자연주의와 부합하고 있다. 그는 한국미술은 인공을 회피하여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기호로서 특징 지워지는 것으로 그것은 결국 자연적인 것에 미의 기준을 두는 자연주의의 태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sup>31)</sup>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적 의상의 형태에서 부각되는 유기적인 곡선의 미는 무의식 중 자연이 만들어 낸 것으로 자연과의 융합, 조화를 추구하는 미로서 자연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자연은 한국인에게 정복의 대상이나 관찰의 대상이 아닌 경외의 대상이요, 아늑한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인간의 가치관을 정립하였다. 이것이 곧 한국적 자연주의 정신이며 자연에 대한 태도였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예술 표현에 있어서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었고 자연의 현상에 몰입하고자 하는 낙천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sup>32)</sup> 자연을 모티프로 하여 느껴지는 한국의 미의 미적 쾌감은 부드러운 산세, 지세 등에서 나온 부드러운 선이라 할 수 있다. 그 선은 직선이 아닌 곡선, 각이 아닌 원, 다소하며 온화하여 정이 통하는 사랑스러운 것,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균형감과 조화를 느끼게 한다.<sup>33)</sup> 이러한 느낌은 우리 나라 지형에 의해 형성된 형태와 질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풍화 작용에 의해 생성된 바위 조각들은 하천의 운반

27) 김원룡, 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28) 안휘준, 한국회화의 미의식,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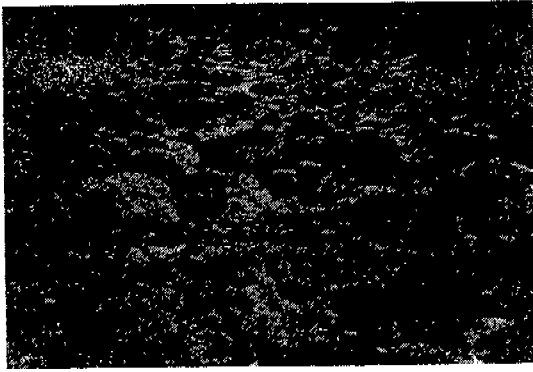
29) 안휘준, 문명대, 김정기, 김리나, 한국미술의 미의식,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0) 금기숙, 앞 논문, p.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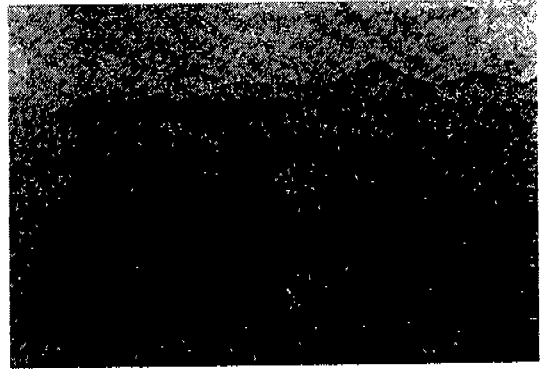
31) 김원룡, 한국 고미술의 이해, p.17.

32) 김영자, 한국 복식미에 표현된 에로티즘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1993, p.159.

33)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p.7.



〈그림 9〉 풍화 작용에 의해 형성된 바위들



〈그림 10〉 한국의 산

작용에 의해 낮은 곳으로 운반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그림 9〉를 낳아 우리의 조형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연 속에 있으며 자연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환경 즉 풍토는 한 민족이 살아온 어떤 지역의 환경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것은 지리적인 자연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느껴지는 어떤 심리 상태를 포함하는 말이다.<sup>34)</sup> 이러한 풍토가 초기에는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그가 성장해 감에 따라 의식세계 속에 침투해 우리의 조형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며 이러한 의식은 한국적 디자인의 모태가 된다. 조형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풍토는 기후, 지형, 생태, 토양, 식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들중 지형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지형적 요소에 대한 우리의 지각 경험이 조형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지형은 의식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의식을 근거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조형물들의 바탕이 된다고 하

겠다.

우리가 사는 땅은 동반구의 동쪽에 자리잡아 대륙에서 들출한 반도와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륙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륙적이지만 평야가 적은 점으로 볼 때 산악적 특성을 지닌다.<sup>35)</sup> 한국의 대부분의 지형은 노년기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산성·구룩성의 낮은 토지가 물결치듯 보이는 곳이 많아 저산국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산의 형태는 산과 산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나〈그림 10〉 우리를 전혀 긴장시키지 않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대하게 되는 산은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처럼 느껴진다.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자연친화사상을 이루는 데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한국인에게 있어서 산은 산악이 많다는 지리적 조건과 동양의 자연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활과 사고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지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기후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력에 영향을 주며 의식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의 하나

34)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1991, p.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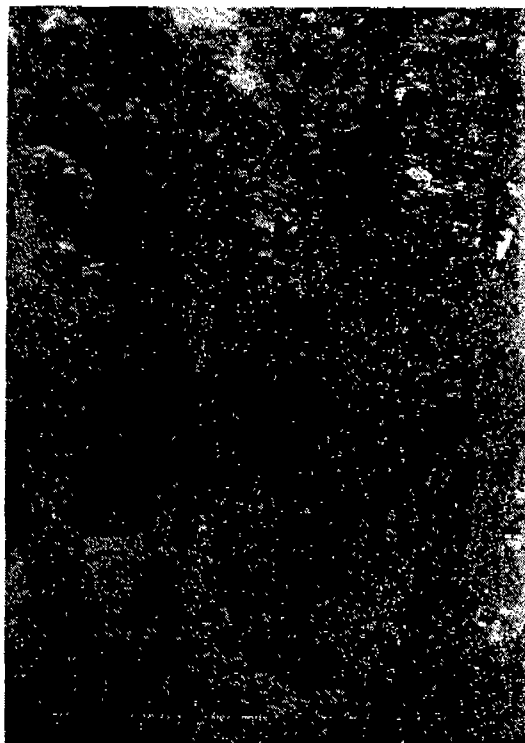
35) 조지동, 한국 문화사 서설, 서울: 탐구당, 1976, p.15.

36) 김영기, 앞 글, p.214.

37) 이어령, 한국인의 신화, 서울: 서문당, 1975, p.208.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아세아 대륙의 동북부의 반도로서 동남부 쪽으로는 일면 섬나라 같은 해양성 기후의 성질도 갖고 있다. 대륙성 기후의 특징으로 우리 나라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워 한서의 차가 심한데, 특히 동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몹시 한랭하여 겨울추위에 크게 지배되고 있다.<sup>38)</sup> 따라서, 우리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솜이불, 솜을 넣은 바지와 저고리 등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솜이불, 솜바지, 솜저고리 등으로부터 두툼한 것을 선호하는 감각이 생겨났다. 이러한 두께에 대한 인식은 의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인 긴장감을 해소하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일년 중 대부분의 시기에 한기를 느끼는 우리의 기후 조건은 두터운 것을 선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기교적인 것을 배척하는 우리의 형태감각을 낳았으며, 우리의 인간성과 미적 개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하나의 게슈탈트(Gestalt)<sup>39)</sup>로서 통합되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의 조형의식의 형태적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의 예로서 소나무<sup>40)</sup>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소나무의 형태에서 '선'의 개념을 찾아볼 때 위로 성장하려는 수직 지향적인 속성과 전체의 역학적인 균형을 위하여 수평 균형을 취하려는 속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나무의 선은 수직적 직선이면서도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면서도 곡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선과 곡선의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나무의 구불구불한 형태<그림 11>에서 유추해 낸 곡선은 자연적인 선이며, 그것에는 자연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 자연의 이치에 대한 존중은 우리의



<그림 11> 노년기성 지형에 의해 형성된 한국 소나무의 형태

모든 조형 예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날카로운 각에 의해 인간을 심리적으로 긴장시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현상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날카롭고 긴장된 직선보다는 부드럽고 둥근 곡선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조형개념은 '한국'이라는 지형적·기후적 특수성과 함께 게슈탈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한국의 자연주의적 미의식은 우리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 등의 풍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특수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38)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p.110.

39) 게슈탈트(Gestalt)란, 사물의 추상적인 형태나 질료와 구별되는 형상이 아니라, 그 자체의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말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표현은 지각 속에 직접 의미론 나타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형동질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생겨나는 과정이 같으면 구조적 조직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40) 연구자 주 ; 본 연구에서의 소나무는 한국적 지형과 기후 속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한국적 미의식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자연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94 강희경 미술의상전 전시장 전경

## 2. 자연주의가 나타난 '한국적 의상디자인'

최근 의상계에 등장한 자연주의는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원화, 절충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국제주의적인 서구의 기능주의 복식에서 벗어나 제3국의 복식 양식을 가미하는 절충양식을 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역사성과 지역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에 힘입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전통에 대한 자각 이후 한국적인 미를 현대의상에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1980년대 이후 서서히 이루어졌으며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게임 등은 우리 고유의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후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국제화

시대가 열림에 따라 우리의 의상계에서는 이제까지의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디자인 의식을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사고로 탈바꿈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적 디자인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한국의 정신문화 전통과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속한 자연 속에서 습득된 문화와 경험에 의한 자연주의적 미의식이 밑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연주의는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철학적 사상과 양식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본 장에서 작품의 예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조형예술의 양식에 있어 형식은 내용의 존재 방식이고, 대상의 표면 현상으로 특별한 미 또는 성



〈그림 13〉 강희경, '95 강희경 미술의상전 Catalogue



〈그림 14〉 금기숙 '95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 Catalogue



〈그림 15〉 이영희, '96 S/S Paris Collectons 「ELLE」

격이 직접 표출된 외적인 상태를 말한다.<sup>41)</sup> 여기에서 환원하여 생각하면 '한국적 의상디자인'이 자연주의에 의한 존재 방식이 되며, 또 그것에 의해 아름다움이 표출된 외적인 상태라고 할 때,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가 근원이 되어 외형적으로 나타난 '한국적 의상디자인'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자연주의적 미가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조형예술에서 외적 형식에 대한 요소는 형태, 색채, 소재 등으로 파악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작품에 나타난 형태, 색채, 소재, 문양으로 분류하여 그 미적 특징들을 다루고자 한다.

강희경의 작품〈그림 12, 13〉에 나타난 유연한 곡선미의 표현은 자연주의적 미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곡선과 직선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름

진 선은 우리 나라 노년기성 지형에 의한 나무의 구불구불한 형태에서 해석해 낸〈그림 11 참고〉 한국적 자연주의가 내포된 선이며, 〈그림 9, 10〉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부드러운 산세, 지세 등 자연에서 추출된 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 선은 작가의 심상에 미적 체험으로 받아들여 예술활동에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자연감정이고 서정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형태에서 부각된 곡선의 미는 무의식 속에서 자연이 만들어 낸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자연과의 융합, 조화를 추구하는 미로서 자연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이러한 자연주의적 미는 비구조적인 평면 형태를 통해 인위적인 형태를 배제함으로써 대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순수성의 지향으로 발전하여 순수미를 표출한다.

41) 미학, 예술학 사전, 앞 글, p.264.



〈그림 16〉 이영희, '96 S/S Paris Collections 「ELLE」



〈그림 17〉 김정희 '97 광주비엔날레 국제미술의상전 Catalogue



〈그림 18〉 설윤희, '95 S/S 「ELLE」

불교의 상징적 이미지로 대표되는 연꽃을 고려 청자의 이미지와 융합하여 형상화시킨 금기숙의 작품〈그림 14〉에서 연꽃의 봉오리와 줄기의 표현은 인체와 함께 자연의 생명력을 갈망하는 자연주의적 의상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 나타냄으로써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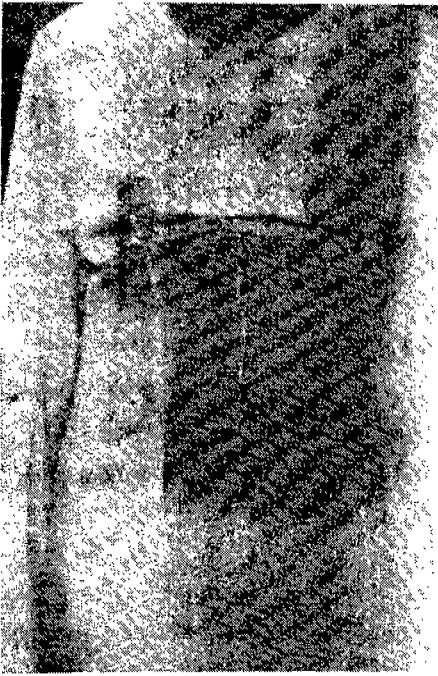
의상에 표현된 색채는 의상의 형태와 함께 의상의 존재를 구체화시킨다.<sup>42)</sup> 의상에 나타나는 색채는 자연계에 포함되어 있는 소재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림 15, 16 : 이영희 디자인〉 강력한 표현력을 갖는 원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 염료로부터 발색한 색이며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백색도 섬유 재료에 일반적으로 나타난 소색인 점을 생각해 보면, 자연과의 친화력의 정도는 짐작될 수 있다. 〈그림 16〉에서 백색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재로서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완성의 공간으로 부각될

으로써 심리적인 여유를 가져오며 자연의 순수함을 표현한다.

우리 나라는 일찌기 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청, 적, 황, 백, 흑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자 하는 색채 개념을 이루어 우리만의 독특한 대비색 조화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대비색 조화는 자연감정이 반영된 색감으로 화려하며 순수한 원색에 대한 동경에 연유하는 한국적인 색조화로 나타내는데 〈그림 17〉은 김정희의 작품으로 색동과 자연주의를 연결시킨 예라 하겠다. 이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우리의 색채관으로 의상의 색조화를 이룬 작품이라 하겠다.

의상의 주된 소재인 직물은 고유한 특성과 함께 독특한 미적 표현을 가지는데, 직물의 종류, 직조에 따라 거칠면서도 소박한 표현성을 갖는 마직물을 사용한 〈그림 18〉은 설윤희 작품이다. 마섬유의 소재에서 표현되는 소박하고 소탈한 미적 특징은 무기교의 기교를 표출한 한국의 자연주의적 정

42) 금기숙, 앞 논문, p.72.



〈그림 19〉 진태옥, '95 S/S S.F.A. Collections  
「ELLE」



〈그림 20〉 이영희, '94-'95  
A/W Paris Collections



〈그림 21〉 이신우, '94 S/S Paris Collections  
Catalogue

서와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그림 19〉는 진태옥의 작품이고 〈그림 20〉은 이영희의 작품으로 사용된 소재는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성을 갖는 투명한 느낌의 모시와 거어즈 소재의 사용으로 자연 속에서의 투명감을 느끼게 한다. 부드럽고 흘러내리는 듯한 실루엣의 단순한 스타일로 이신우의 작품〈그림 21〉은 섬세한 자연섬유 소재에 부드러움을 주는 거어즈와 한국적 이미지로 대표되는 것 중 하나인 닥종이의 느낌을 주는 소재와의 결합에서 see-through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같이 가볍고 투명한 직물들은 부드럽고 은은한 감촉으로 자연의 평온함과 삶의 힘을 표현해 주고 있어 우리의 생명력과 힘의 근원지인 자연의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담하고 화려한 색상과 부녀를 통해 소박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로 한국의 전통을 현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설윤형은 〈그림 22〉의 작품에서 한국적 미의식인 자연주의적 감각을 우리 민화의 하나인

산수화의 도입으로 표출하고 있다. 진태옥의 작품 〈그림 23〉는 꽃무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활옷의 이미지를 살린 것으로 자연에서 얻은 꽃분양과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적 미가 최근 디자이너와 작가들의 작품의 표현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디자이너와 작가들이 의상에서 한국의 정서가 깃든 자연주의적 미를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각자의 독특한 양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적 의상디자인'은 그 존재 가치가 있게 되며, 그것이 나아갈 방향을 자연주의에서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전통의 뿌리가 되는 사상과 양식을 바로 찾는 것이라 하겠다.

## V. 결 론



〈그림 22〉 설윤형, '96 「Vogue」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의상디자인’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자연주의를 고찰하여 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현대인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문명과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서 문명에 의한 편리함의 추구하고 인간성 회복 및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의식의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대해진 문명의 결과로 인해 자연과 공생하는 모습은 과거의 추억이며 동경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렇듯 자연으로부터 소외와 인간성의 파괴로 인하여 삶이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자연주의가 시대사조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자연환경에 대한 현실적 위기감과 책임감을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자연주의 의상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또한 자연의 회복과 인간성 상실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적 자연주의가 우리의 생활 속에 감각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스며



〈그림 23〉 진태옥, '95 S/S Paris Collections 「ELLE」

들어 우리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으로 탄생될 때 ‘한국적 의상디자인’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1990년 이후 디자이너와 작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를 통하여 전통의 뿌리가 되는 사상과 양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 이전에는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서양의 것과 구분이 되지 않았었고 과거 양식을 복사하거나 변형하여 조작된 형태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표현되거나 산발적인 전통의 파편들에 의해 모자이크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때로는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바른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의 한 형식적 요소의 재현이 아닌 현재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주의적 의상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적 미의식이 자연주의적 미의식이라고



집약하여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반영된 의상디자인은 우리의 특수함을 잘 살린 독특한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풍토가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자리하여 조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았으며, 우리의 조형의식을 형성하는 풍토의 개념에는 지형, 기후, 토양, 생태, 식생 등이 포함되고, 이는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토대를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그 결과 우리의 풍토에 입각한 자연주의는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외형적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질감), 문양 등을 새롭게 창조하고 개발하는 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근대화 이후 국제적으로 보편화 된 서양 의상의 무분별한 침투로 인해 그동안 침식되어 왔던 한국적 의상 문화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만의 감각이 아닌 세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의 개발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의상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연주의에 관한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접근은 구체적인 '우리의 것'을 찾아내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철학과 사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구심점을 찾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으로서의 확고한 '한국적 의상디자인'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가정학회지, 제 27권 2호, 1989.
- 김민자, 하지수,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복식 21호, 1993.
- 김복영, “한국 미술 그 다시 태어남을 위하여”, 공간 251호, 1988.
-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1991.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1992.
- 김영자, “한국 복식미의 연구-예의관과 표현미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영자, “한국 복식미에 표현된 에로티즘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1993.
-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서울: 열화당, 1990.
- 김원룡, 「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 명승수, 「현대 디자인학의 지평」, 서울: 월간 디자인 출판부, 1987.
- 미진사 편집부, 「미학·예술학 사전」, 서울: 미진사, 1989.
-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백기주, 「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안휘준, 「한국 회화의 미의식」,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안휘준, 문명대, 김정기, 김리나, 「한국 미술의 미의식」,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양윤정, “현대 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월간 미술 편집부, 「세계 미술 용어 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6.
- 이경자, “한국복식사의 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문환, 「미학의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1989.
-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서울: 숲출판사, 1997.

- 이경자, 「우리 의생활의 전통 양식, 전통적 생활 양식 연구」, 서울 : 천풍 출판사, 1982.
- 이어령, 「한국인의 신화」, 서울 : 서문당, 1975.
- 조규화, 「복식 미학」, 서울 : 수학사, 1990.
- 조규화, “당초 문양 계보”, 미술자료 18호, 1982.
- 조지동, 「한국 문화사 서설」, 서울 : 탐구당, 1976.
- 최세완,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 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홍가이, 「현대 미술 · 문화 비평」, 서울 : 미진사, 1992.
- Peter N. Skrine & Lilian R. First(천송걸 역), 「자연주의」,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W. Tatarkiewicz, 「미학의 기본 개념사」, 서울 : 미진사, 1987.
- Marie-Charles Dominique, Jocelyne Pion, 「Art et Nature」, Paris : Ligeia, 1992.

## ABSTRACT

### A Study on the Naturalism presented in Korean Fashion Design

— Focused on the Design Since 199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root from naturalism to contribute the identity of Korean fashion design in the world which has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The beauty of nature has accumulated in our unconsciousness, influenced to our unconsciousness, and contributed to make the formative sense. Our consciousness influenced by climate, for example, the sense of softness from soft curve which can feel from the sight of Korean mountain, land and pine tree raised by senescent land, the sense of comfort and security from round rock formed by weathering, the sense of thickness from cotton to endure cold winter etc.

has a tendency to think and act by nature's law. This tendency made naturalism by Korean climate and linked to the sense of naturalistic beauty and became a important part forming the Korean fashion design.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found Korean climate is a important factor acting in our consciousness, and influenced the formative sense. The concept of climate which is made our formative sense include topography, climate, soil, plant and so on. This influenced a lot to set up a foundation of Korean fashion design. And the naturalism by Korean climate newly created and developed shape, color, material and design.

It is our duty to develop design based on naturalism to secure the competitive power against the world in this period of information and this design is getting important as a high value added method put into Korean culture. Therefore, developing Korean design which shapes the beauty of Korean nature and traditional culture will have a important competitive power in the world. Moreover, it will make a new tradition of Korean fashion culture stagnated by internationally universalized western fashion after the modernization. Also, it will be needed to develop a common design which can be agreed not only us but all the world for the request of these days of international.

Therefore, this study contributed to find definite ours and found centripetal point to find the direction of Korean's philosophy and ideology. But this approach, we could secure the competitive power in this period of international and information and determine and

develope the Korean fashion design as a culture base, leading the world.